

다니엘서 - 제119편

역사적 이정표의 예언적 의의: 성경의 상징을 통해 말세를 이해하기

Jeff Pippenger

2024-03-06

14만 4천 명은 언약의 사자에 의해 정결케 된 자들로, 큰 무리는 순교의 흰 옷으로 상징된다. 말세의 두 거룩한 기간 가운데 첫째는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사역을 나타내며, 둘째 기간은 엘리야의 사역을 나타낸다. 첫째 기간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심판을, 둘째 기간은 현대 로마에 대한 집행심판을 나타낸다.

말세에 도시에서 도피하라는 '징조'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서 오해되어 왔다. 화이트 자매는 서기 66년부터 70년에 걸친 예루살렘의 파괴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경고의 징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머지않아, 초기 제자들처럼, 우리는 황량하고 외딴 곳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의 신호였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교황의 안식일을 강제하는 칙령을 권력으로 시행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산중의 외딴 한적한 곳에 있는 은거처로 가기 위하여, 먼저 대도시를 떠나고, 그다음에는 작은 도시들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증언, 제5권, 464쪽.

피신하라는 신호였던 예루살렘 포위는 케스티우스가 벌인 첫 번째 포위전이었다. 따라서 케스티우스가 가한 위협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는데, 그는 일단 포위를 시작하자 곧 수수께끼처럼 철수했으며, 역사학자들은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케스티우스의 지휘하에 있던 로마군이 성을 포위한 뒤, 모든 것이 즉각적인 공격에 유리해 보였을 때 그들은 뜻밖에도 포위전을 포기했다." 대쟁투, 31.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뉴햄프셔 출신의 헨리 W. 블레어 상원의원은 일요일을 국가적 휴식일로 지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흔히 '블레어 일요일 법안'으로 불렸다. 블레어 의원은 일요일을 휴식과 종교적 준수의 날로 지키는 것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통일된 휴식일이 미국 사회에 도덕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노력은 특히 종교 단체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얻었지만,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반대에도 직면했다.

이는, 결국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킬 때 용처럼 말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땅의 짐승의 역사에서 일요일 입법을 통과시키려는 첫 시도였다. 바로 이 블레어 법안들의 연속에 대해 1888년 대총회 회기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던 A. T. 존스가 미국 의회 의사당에 들어가 아주 설득력 있게 반대했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블레어 상원의원은 국가적 휴식일 추진의 동력을 잃었다. 그 역사와 국가적 휴식일(일요일)의 함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엘렌 화이트의 권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일요일령에 대한 그녀의 경고들을 검토해 보면, 그것은 중대하며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안에서 널리 오해되고 있다.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 도시 밖에 있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때는 큰 도시들을 떠날 때가 될 것이며, 이어 작은 도시들을 떠나 산중의 외딴 곳에 있는 은거할 집들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가 될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고 거듭 가르쳤지만, 1888년 이전의 시골 생활에 관한 그녀의 권면들은 도시를 떠나라는 지시를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도시들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맥락 속에 두었다. 1888년 이후에는 시골 생활에 관한 그녀의 서면 지침에서, 우리는 이미 도시를 떠나 있어야 한다는 권면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역사 속에 등장한 블레어의 국가적 휴식일 법안들은 도시를 떠나라는 ‘신호’였다. 비록 블레어 법안들이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잃고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도피하라는 ‘신호’는 이미 주어졌다. 그 신호는 케스티우스가 가져온 첫 번째 포위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에서 주어졌다. 머지않아 다가올 주일법은 티투스의 포위전으로 상징되며, 그 포위가 닥칠 때에도 여전히 도시들에 남아 있는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악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말세에는 두 가지 예언적 기간이 있다. 그것들은 곧 임할 일요일령에 의해 구분된다. 첫 번째 기간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 안에서 산 자들에 대한 조사심판이며, 두 번째 기간은 로마의 음녀에 대한 집행심판이다. 이 두 기간은 거듭 예증되는데, 이는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두 기간에 열 처녀의 비유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이다. 비유 속 지체하는 때는 하박국 2장의 지체하는 때이므로, 우리가 살피는 이 두 기간은 하박국 2장에 의해서도 예증된다. 열 처녀의 비유와 하박국 2장은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때 에스겔 12장 21절부터 28절도 성취되었다.

에스겔 12장의 마지막 여덟 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시를 ‘더 이상 지연하지’ 않으실 때, ‘모든 목시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를 가리킨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과 두로의 음녀에 대한 집행 심판을 드러내며 자주 반복되는 역사상의 두 기간은, 성경 안의 모든 목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성취에 이르는 예언의 기간이다. 그 기간에 십사만 사천이 세워지며, 그들은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는 부류들 대표한다.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징조’를 지적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멸망의 가증한 것과 관련하여 제시하신 도망하라는 ‘표징’으로 상징되는 두 역사에서, 두 기간이 구분되며 각 기간의 시작과 끝에는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표징’과 끝을 알리는 여러 ‘표징’이 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살아 있을 마지막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지목하신 그 ‘표징’은 우리가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에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의 문자적 예루살렘의 삼 년 반에 걸친 짓밟힘과 파괴에서부터, 538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난 영적 예루살렘의 삼 년 반에 걸친 짓밟힘의 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밝히신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황폐함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떠나가며, 들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며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20-24.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때'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서기 70년에 끝난 문자적 예루살렘의 짓밟힘과 1798년에 끝난 영적 예루살렘의 짓밟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은 이교와 교황권을 모두 대표하며, '얼마 동안이겠느냐'라고 묻는 다니엘 8장의 그 환상에서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두 권세이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자가 말하고 있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던 그 어떤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상과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이상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어 성소와 군대가 모두 짓밟히게 되겠느냐?" 하니라. 다니엘 8:13

누가복음 21장의 "이방인의 때"는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2,520년을 가리키며, 그 기간은 기원전 723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났다. 538년은 불법의 사람이 거룩한 곳에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때를 가리키며, 그래서 그 기간은 각각 1,260년의 두 동등한 기간으로 나뉘었다. 두 번째 1,260년의 기간은 "이방인의 때"가 성취될 때, 곧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 끝으로 표시된 바로 그 역사와 동일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 주신 역사적 서술에서, 24절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증언을 1798년의 "끝의 때"로 이끈다. 그 지점에서 예수께서는 밀러파 운동과 관련된 "징조들"을 밝히기 시작하신다.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여러 민족이 공경에 처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바다와 물결이 울부짖으리라. 사람들이 땅 위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며 두려움으로 기절할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몸을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25-28.

예수께서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징조들을 해와 달과 별들에 나타나는 징조들, 민족들의 혼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 그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지목하신다. 이 모든 '징조'는 밀러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방식과 목적을 예고할 뿐 아니라, 그 오심이 가까웠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징들도 제시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 징조가 있으리라." 누가복음 21:25.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3:24-26. 계시자는 재림에 앞서 나타날 첫 표징을 이렇게 묘사한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굵은 베옷같이 검게 되었으며, 달은 피 같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6:12.

이러한 징조들은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목격되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 1755년에 지금까지 기록된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지진이 일어났다. ...

그로부터 25년 뒤에 예언에 언급된 다음 징조, 곧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일이 나타났다. 이 일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 것은 그 성취의 때가 분명히 지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에서, 교회가 겪을 오랜 시련의 기간, 곧 그 환난이 단축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교황권의 1260년 박해를 설명하신 뒤, 재림에 앞서 일어날 몇 가지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시고 그중 첫째가 목격될 때를 정하여 주셨다: '그 날들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3:24. 1260일, 곧 1260년은 1798년에 끝났다. 그보다 4분의 1세기 앞서 박해는 거의 완전히 그쳤다. 이 박해가 끝난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해가 어두워질 것이었다. 1780년 5월 19일,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재림의 징조를 살피라고 명하시고, 오실 왕의 표징들을 보게 될 때 기뻐하라고 하셨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는," 그분은 말씀하셨다, "위를 바라보고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 그분은 봄에 싹트는 나무들을 제자들에게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그 나무들이 이제 싹을 내면, 너희는 스스로 보아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누가복음 21:28, 30, 31. 대쟁투, 304, 306-308.

세 로마에 대한 삼중 적용은, 이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짓밟음과 이어지는 교황 로마에 의한 짓밟음 속에서, 현대 로마에 의한 성소와 군대의 짓밟음이 이교 로마의 경우 1,260일, 교황 로마의 경우 1,260년(예언적 연수)이라는 기간으로 표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상징적 1,260일(42개월)은 현대 로마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박해하는 기간을 가리키며, 각 기간에는 그 기간의 신실한 자들의 도피 시기를 식별해 주는 단 하나의 '표징'이 있다. 세 기간 각각은 그 기간의 시작 때와는 달리 단일한 '표징'이 아니라 여러 '표징'의 나타남으로 끝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해가 그 강한 빛을 발하며 나타난다. 표적과 기사가 잇따라 일어난다. 악인들은 그 광경을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의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징표들을 엄숙한 기쁨으로 목도한다. 자연계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난 듯하다. 시냇물들의 흐름이 멈춘다. 어둡고 짙은 구름들이 밀려와 서로 부딪친다. 성난 하늘 한가운데에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한 맑은 틈이 있어, 거기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말씀하신다: '되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대쟁투, 636.

로마의 음녀에 대한 집행 심판의 기간은 바벨론에 아직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 떼가 떠나야 함을 알리는 기치가 높이 들려질 때부터 시작된다. 그 기간은 '표적과 기사'로 끝난다. 그 기간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난다. 물론,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와 둘째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첫째 음성은 살아 있는 라오디게아 재림교회에 대한 조사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둘째 음성은 그 기간의 끝을 알리며 또한 로마의 음녀에 대한 집행 심판의 시작을 알린다.

전체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주간을 의해 규정되며,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은 십자가로 표상된 가운데 이정표로 표상된다. 두 역사 모두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지니고 있는데, 각 역사에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또한 진리를 나타내는데, 가운데 이정표가 일요일 법령의 반역이며,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열셋째,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첫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마지막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가운데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또한 그곳에서 열세 번째 글자의 반역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대로 용처럼 "말하는" 땅의 짐승으로 표상된다.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의 기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도피해야 할 '표징'을 나타내지만, 또한 그 기치가 높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예언적 기간의 시작에도 반드시 '표징'이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그 '표징'은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도래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예수께서 지목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사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이까? 누가복음 21:7.

그 후 예수께서는 성전과 도성이 파괴될 서기 70년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밝히기 시작하시고, 이방인의 '때'가 언제 성취될지를 밝히시는 2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 가운데로 사로잡혀 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24.

이 구절이 문자적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생각은, 상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예언의 성취를 오로지 세상 종말에만 두는 '미래주의'라는 가톨릭 신학적 어리석음에 근거한다. 이 구절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공격은 신약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전 과정에서 사탄의 중대한 공격이었다. 문자적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시대에, 예언의 성격이 문자적에서 영적 적용으로 바뀌었을 때, 예언적 예루살렘의 상징이기를 그쳤다. 이 계시는 사도 바울이 확립한 주요한 가르침이었다. 예루살렘이 짓밟힘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1,260년 동안 지속된 교황권의 암흑기를 가리킨다.

그러나 성전 바깥뜰은 제외하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2.

예언 속의 예루살렘은 십자가에서 선택받은 도시의 상징이 아니게 되었다.

옛 예루살렘의 땅을 밟아 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느끼고, 구주의 생애와 죽음의 현장을 방문하면 자신의 믿음이 크게 굳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정결케 하는 불로 정화되기 전에는, 옛 예루살렘은 결코 거룩한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6월 9일.

예수께서 24절에서 제자들을 1798년의 종말의 때로 이끄신 다음, 이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 속에서 선포되던 밀러파 시대를 소개하셨다.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여러 민족이 공경에 처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바다와 물결이 울부짖으리라. 사람들이 땅 위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며 두려움으로 기절할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몸을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25-28.

밀러주의 역사의 시작을 알린 징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코 실패하지 않는 권능에 따라 성취되었다.

"해와 달과 별들에 나타난 징조들은 성취되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6년 11월 22일.

다음 글에서 누가복음 21장을 계속하겠습니다.

1848년 12월 16일, 주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나는 주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표적들을 말씀하실 때 '하늘'이라고 하셨으면 하늘을 뜻하셨고, '땅'이라고 하셨으면 땅을 뜻하셨음을 보았다. 하늘의 권능은 해와 달과 별들이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다스린다. 땅의 권능은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다. 하늘의 권능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질고 무거운 구름이 몰려와 서로 부딪쳤다. 대기가 갈라져 뒤로 밀려났고, 그러자 우리는 오리온자리의 열린 공간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열린 공간을 통해 거룩한 성이 내려올 것이다. 나는 지금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건들이 차례대로 전개됨을 보았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칼, 기근, 전염병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 것이며, 그 후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까지도 흔들 것이다. 나는 유럽에서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이 어떤 이들이 가르치듯 하늘 권세들의 흔들림이 아니라, 분노한 나라들의 흔들림임을 보았다." 초기 저술, 41.